

죽도문제연구회의 왜곡-2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Q74.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우산도는 독도인가? ->(결론)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우산도는 바로 독도다

[해설과 비판]

이 문장은 죽도문제연구회 좌장인 타쿠쇼쿠 대학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가 썼다. 시모조 교수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우산도는 독도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 측이 『동국문헌비고』(1770)에 기재된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라는 부분을 근거로 우산도를 송도(=독도)로 해석해 왔지만 『동국문헌비고』의 근거가 된 『여지지』(1656) 원문에는 '일설에 의하면 우산 올릉 본래 한 섬'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우산도를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라는 부분이 없으니 이것은 후세적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논리가 시모조 교수가 말하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부정논리의 핵심 중 하나다.

그런데 오히려 시모조 교수의 이 논리자체가 심한 왜곡 이외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지지』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동국문헌비고』의 인용문이 『여지지』에서 원래 인용된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증명할 근거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지지』(1656)를 먼저 인용한 책은 『동국문헌비고』(1770)가 아니라 『강계고』(1756)이고 『강계고』는 다음과 같이 『여지지』를 인용했다.

‘여지지가 말하기를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원래 한 섬. 그러나 여러 도지(圖志)를 보고 생각하면 두 섬인 것이다. 하나는 소위 송도(=독도)이고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인 것이다(按輿地志云 一說于山鬱陵 本一島 而考諸圖志二島也 一則其所謂松島 而蓋二島 俱是于山國也).’

시모조 교수는 이 『강계고』 문장 속에서 『여지지』에서 인용된 부분이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원래 한 섬’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조 교수는 그 부분만이 『여지지』에서 인용된 부분이라고 억지로 단정한다. 『강계고』의 원문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모조 교수는 이런 식으로 시모조류 단정과 왜곡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 『동국문헌비고』(1770)에 나오는 『여지지』에서의 인용문을 보자.

‘여지지가 말하기를,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 松島也).’

『강계고』와 『동국문헌비고』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동국문헌비고』의 문장에는 『강계고』에 있는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원래 한 섬’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생각하면, 『동국문헌비고』가 『여지지』에서 인용한 문장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을 남겨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해 정리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원래 한 섬’ 부분은 원래 『여지지』에 처음 나온 문장이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먼저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로서의 『여지지』본문이 아니라서 삭제해도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모조 교수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여지지』가 처음으로 기술한 『여지지』만의 내용이 바로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원래 한 섬’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인 것이다. 그 문장에 이어지는 ‘그러나 여러 도지(圖志)를 보고 생각하면 두 섬인 것이다’ 이하의 문장은 『여지지』가 처음으로 기술한 내용,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한 섬’설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하의 문장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두 섬’이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나 여러 도지(圖志)를 보고 생각하면 두 섬인 것이다’라는 부분은 그에 더 이어지는 문장 속에도 나오기 때문에 삭제해도 문제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정리된 인용문이 들어간 『동국문헌비고』 이후의 관찬 문헌에서는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 원래 한 섬’이라는 문장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 도지(圖

志)를 보고 생각하면 두 섬인 것이다'라는 문장도 생략된 것이다.

결국 『강계고』가 인용한 『여지지』의 인용문 중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동국문헌비고』의 인용문이 정리되었다. 그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면 『강계고』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어 『동국문헌비고』의 인용문의 토대가 된다.

‘여지지가 말하기를, [우산과 울릉 두 섬은] 하나는 소위 송도(=독도)이고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인 것이다(按輿地志云 [于山鬱陵 二島] 一則其所謂松島 而蓋二島俱是于山國也).’

이 내용을 읽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지지가 말하기를, 우산과 울릉 두 섬 모두 우산국의 땅이고 하나는 소위 송도(=독도)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一所謂 松島也).’

이렇게 위와 같이 『동국문헌비고』의 문장과 거의 일치한 문장이 나온다. 그러므로 시모조 교수가 말한 내용 즉 『여지지』를 『강계고』가 왜곡시켰다는 결론은 근거가 없다. 『여지지』의 문장을 인용한 『강계고』의 문장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동국문헌비고』의 문장이 작성되었음이 역사의 진실인 것이다.

이어서 시모조 교수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을

때는 편집방침이 있었고 섬의 경우에는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그런 편집방침이 있었다는 근거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모조 교수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맑은 날씨에 한반도에서 잘 보인다는 얘기라고 한다. 그러나 울릉도는 한반도에서 보인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산도(=독도)는 한반도에서 볼 수 없다. 그러니 시모조 교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과 울릉 원래 한 섬’이라고 적혀 있으니 한반도에서 보이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원래 울릉도 한 섬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섬이 육지에서도 보인다는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내용이라고 억지 주장한다.

이런 논리전개에는 심한 왜곡의 사례로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산과 울릉 원래 한 섬’이라는 기술은 ‘일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본론은 우산도와 울릉도를 ‘두 섬’으로 보는 견해인 것이고 첨부지도인 ‘팔도총도’에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있다 하더라도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을 지도에 잘 그려놓았다. 시모조 교수는 『태종실록』에는 울릉도를 우산도로 기술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여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명이므로 ‘우산과 울릉 본래 한 섬’이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물론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던 태종시대 전에는 울릉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우산국의 본도를 ‘우산도’라고 불렀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울릉도의 거주민들이 모두 육지로 연행된 세종시대 중반 이후, 우산도라는 명칭이 독도의 이름으

로 옮겨갔다. 그것이 정리된 공식문서가 『세종실록 지리지』인 것이다.

시모조 교수의 주장은 깊이 대상을 연구하지 않고 겉으로 나와 있는 내용만을 자신의 논리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왜곡 스타일에서 나온 것들이다.